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8

# 청정하고 광대무변한 것은 법신뿐

**[원문]**  
보화비진료망연 법신청정광무변  
(報化非眞了安緣 法身清淨廣無邊)  
천강유수천강월 만리무운만리천  
(千江有水千江月 萬里無雲萬里天)  
삼계유여급정음 백천만겁역미진  
(三界猶如及井輪 百千萬劫歷微塵)  
차신불함금생도 경대하생도차신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태화산 광덕사 보화문

**[번역]**  
보신과 화신은 허망한 인연이요  
법신은 청정하여 광대무변하네.  
천강에 물이 있으니 달그림자 천 개요.  
만 리에 구름이 없으니 만 리 하늘이네  
삼계는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도다  
이제 이 몸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선해(禪解)]**  
날이 춥고 세차게 바람이 부는 날, 법당에 들어 서면 향내는 더욱 짙고 향기롭다.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산승(山僧)의 마음도 때 없이 초연(超然)해진다. 철쭉 평생 맡아 온 향이지만 어제와 오늘, 그 향취가 다른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향내는 똑 같은 향이면서도 날씨와 기온의 차이, 혹은 향불을 불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향내는 지극하고 향기롭지만 불심이 깊지 못하고 그저 절에 왔으니 향불이라도 올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지핀 향은 오래 타지 못하고 득(燻)하다.  
향은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정중동(靜中動)을 의미하는데 등, 꽃, 과일, 차, 쌀과 함께 불교의 대표적인 육법공양(六法供養)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각각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절에서 향을 피우는 의미는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하는 회생을 뜻하고 화합과 공덕을 상징한다. 그래서 해탈향(解脫香)이라 부르기도 한다. 등(燈)은 반야등(般若燈)이라고 하여 지혜와 회생·광명·찬탄을 상징하고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고 해서 수행을 뜻하기도 하고 때론 장엄·찬탄을 상징한다. 과일은 보리과(菩提果)로 깨달음을, 차는 감도다(甘露茶)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쌀은 선열미(禪悅米)로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한다.

무턱대고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올리는 공양의 의미를 안다면 그 기쁨은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으로 향에 불을 지피고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담아 과일을 부쳐님 전에 올리는 공덕은 그 어떤 공덕보다도 크다. 많은 것을 공양한다고 해서 더 큰 공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에 있다는 뜻이다.  
'생미백년(生未百年)이요, 사후천년(死後千年)'이라는 말이 있다. 비록 사람이 백년을 못 살아도 천년의 흔적을 남기라는 이야기인데,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죽은 뒤에 천년 동안 남에게 원망 듣지 않는 삶이다. 공덕 또한 그렇다. 천년 동안 남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아주 덕(德)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려면 공덕을 쌓아야 한다. 자주 법당을 찾아 비록 작은 것을 공양하더라도 그 어떤 재화나 물질보다 더 귀하며, 작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크다고 하여 공고심(貢高心)을 내지 말고 진심으로 공양을 올리라는 말이다.  
절이라는 곳은 그냥 설법을 해주고 기도해 주고 불공 올려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 세상 등 많은 것을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사적기>는, 이 절의 개창을 신라 흥덕왕7년(832)으로 적고 있는데, 자장을 흥덕왕 때 사람으로 착각한 듯하다. 또 <태종실록>(28권)에 따르면, 1414년(태종 14) 가을에 왕명으로 <대반야경(大般若經)>(전부)을 일본의 승려 규도(奎濤)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화비진료망연 법신청정광무변: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은 마침내 허망한 인연이요 법신(法身)은 청정(淸淨)하여 광대무변(廣大無邊)하네'

보화는 보신불·화신불의 준말로써 삼신불(三身佛)의 하나인데 선행 공덕을 쌓은 결과로 나타난 덕(德)이 원만(圓滿)한 불(佛)을 이르며 화신불은 부처님이 중생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응신불이다. 그런데 이 보화마져 허망한 인연이며 오직 청정하고 광대무변한 것은 법신뿐이라는 말씀이다.

'천강유수천강월 만리무운만리천: 천강에 물이 있으니 천강의 달그림자도 천 개요.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 만리 하늘이네.'

법신은 곧 변화하지 않는 달의 모습이며 구름 없는 만리 밖의 하늘도 오직 똑같은 법신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부처님의 법신은 그 어디에서도 향시

## 훌륭한 삶은 죽은 뒤 천년 동안 원망 듣지 않는 것 공양의 크고 작음 보다 정성스런 마음이 더 중요

와 시간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한 개의 향불을 사르듯 다뤄야 한다.  
오늘의 주련여행은 태화산 광덕사이다. 충남 천안시 광덕면(廣德面) 광덕산 남쪽 기슭에 있는 천년 사찰이다. 652년(진덕여왕 6)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불치(佛齒) 1과와 사리 10과, 금은자(金銀字) <화엄경>, <법화경>, <은중경(恩重經)> 각 2부 등을 승려 진산(珍山)에게 주어 새 도량(道場)을 열었다고 되어 있다.  
1464년(세조 10) 세조가 이곳에 거동하였을 때 한계희(韓繼禧)에게 명하여 전지(傳旨)를 써 내렸는데, 위전(位田)을 바치고 각종 요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 28방(房)에 부속암자가 약 89개, 9개의 금당(金堂), 80칸의 만장각(萬藏閣), 3층으로 된 천불전(千佛殿)은 불교도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번창하여, 경기·충청 일대는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는 대찰이 되었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탄 후 대웅전·천불전만 중건되어 큰 절의 명맥만을 유지하였고, 1981년 대웅전·천불전 등을 신·중축하였다. 고려사경인 보물 제390호 <금자사법화경(6책)과, 천불전의 대형 후불탱화 3점, <금자사적기(金字事蹟記)>, <세조어첩(世祖御帖)> 등 문화재가 있다.  
그런데 1680년(숙종 6)에 안명로(安命老)가 쓴 <

중생을 살피고 있다.  
'삼계유여급정음 백천만겁역미진: 삼계는 마치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도다.'  
중생이 생사에 유전하는 미혹의 세계를 과거·현재·미래 삼세라고 한다. 중생들은 우물의 두레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백천만겁의 세월을 끝없이 흘러 다닌다. 여기에서 미진이란 물질의 아주 작은 극미의 7배를 말하는데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차신불함금생도 경대하생도차신: 이제 이 몸 금생에서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다. 이때 열심히 수행하여 성불을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자신을 제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보화문에 담긴 주련의 뜻은 생사의 윤회를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닦고 수행하라는 경구(警句)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3

## 착한 법은 깨달음이 근본

**[원문]**  
十地經云 衆生身中 有金剛佛性 猶如日輪 體明圓滿 廣大無邊 只爲五陰 黑雲所覆 猶如瓶內燈光 不能顯現. 又涅槃經云 一切衆生 皆有佛性 無明覆故 不得解脫. 佛性自覺也 但能自覺 覺智明了 離其所覆 則名解脫 故知一切諸善 以覺爲根 因其覺根 遂能顯現諸功德樹 涅槃之菓 由此而成 如是觀心 可名爲.

<십지경>에 이르시길 "중생의 몸 안에 금강 같은 불성이 있는데 해와 같이 밝고, 원만하고, 크고, 끝이 없는데 오음오온의 먹구름에 덮여 있으므로 병 속의 등불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였고, <열반경>에서 이르시길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는데 무명에 덮여 있어 해탈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불성이란 것은 깨달음이다. 스스로 깨달아 깨달은 지혜가 분명하여 덮이었던 것을 벗어남 해탈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일체의 선은 깨달음이 그 근본임을 알 수 있느니라. 깨달음의 뿌리에 의하여 모든 공덕의 나무가 드러날 수 있으며 구경(覺醒)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 하느니라.



중국 소림사의 달마상.

**[해설]**  
진실한 마음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말하는데 무명(無明)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똑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명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말이지요.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우주는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쓸 수 있다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부터 본래마음을 쓰지 못하고 육체 위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번뇌에 의해 불성(佛性)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만 녹이면 본래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번뇌를 녹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래 불성을 찾지 못한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몸 안에 금강 같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물질로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성을 다이아몬드로 비유한 것입니다. 불 수는 없지만 본래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불 수가 없으니

깨뜨릴 수도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주의 근본실상인 하나의 마음자리를 확신하고 그 자리를 깨치고자 여러분이 정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자님들께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진여자성은 무량광불(無量光佛),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 했습니다. 빛이요 무한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광명체라 하였지만 마음이 우리의 여섯 기관을 통해 색(色: 물질) 수(受: 감수 작용) 상(想: 표상 작용) 행(行: 정신적 행위) 식(識: 알음)이이란 오온(五蘊)의 작용에 끄달려 우리의 본래 실상인 진여자성이 가려져 있어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돌이 아닌 하나의 도리를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을 무명(無明)이라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불성이 분별하는 마음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불성을 가리고 있는 그 번뇌를 녹여 불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37가지 수행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때 불성이라고 합니다. 경계에 끄달려 가며 쓰는 마음은 번뇌이지 불성은 아닙니다. 근본 불성자리에서는 생사도 없고, 오고 감도 끊어지고, 좋고 나쁜 것도 아릅답고 추한 것도 끊어진 무념(無念)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보는 경지를 불성 또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이 아닌 하나의 도리를 확실히 깨달아 하나로 써야 되는데,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習) 때문에 하나로 쓰지를 못합니다. 늘 나누어 보고, 시비분별하는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습기(習氣)라는 것은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습을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일체의 선이라는 것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 해야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뿌리에 의해 모든 공덕의 나무가 드러날 수 있으며 구경(覺醒)의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마음을 깨달았을 때 능력을 쓸 수 있고 불성이 드러나는데, 하나의 마음을 두고 정진하면 깨달고 해탈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법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가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한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전과장님~~  
법보 이번주 신문에 나가는  
'동산불교대학' 광고...  
요기에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